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 
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 
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 
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  
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734 서울  
시 종로구 안국동 175-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'길  
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●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  
는 한마음 선원 ●FAX: (031)470-3116



## 길을 묻는 이에게

제 769호 현대불교  
2010년 2월 3일(음 12월 20일) 수요일 / 불기 2554년  
법공양 페이지

25

# 보이지 않는 문이라야 되는 거지 댐 구멍은 없어요

(지난 호에 이어서)

**질문자1(남):** 제가 여기 스님 앞에서 다 고백하  
는데도, 올해 37세 먹은 노총각입니다.

**큰스님:** 그러세요?

**질문자1(남):** 예.

**큰스님:** 그 색시들이 다 어디로 갔냐? (대중 웃  
음)

**질문자1(남):**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  
마는 참, 남의 집 귀한 딸들에게 눈물을 많이 흘리  
게 했습니다.

**큰스님:** 미리, 장가도 안 들고 미리요? (대중 웃  
음)

**질문자1(남):** 그것 때문에 참 죄의식도 많이 느  
끼고, 그게 또 어떻게 계기가 돼 가지고 스님 말씀  
도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요. 결과적으로는 오히  
려 잘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자 여  
자 따로 보이고, 또 여자도 예쁜 여자하고 좀 안  
예쁜 여자하고 차별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본  
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  
우가 아직까지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, 저 역시 알  
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성  
도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확실하지  
않은데 앞으로 계속 주변 사람들 피해를 주변 안  
되니까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잘못된 버  
릇을 빨리 좀 고치고 싶습니다.

**큰스님:** 네. 그것은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.  
더도 덜도 말고 당신 같은 사람만 꼭 얻어요. (대  
중 웃음) 왜냐하면 내 배우에 넘치게 올려다봐도  
안 되고 내려다봐도 안 됩니다. 단, 당신에게 결맞  
고 아리따운 마음씨를 가진, 그저 아주 이쁘지도  
않고 아주 못생기지도 않고, 그냥 마음씨 알뜰한  
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시도록 하세요. 이 마음공  
부라도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.  
그럼 뭐, 옛것처럼 만났던 사람도 쓸쓸하지 않  
아요? (대중 웃음)

**질문자1(남):** 감사합니다.

**큰스님:** 이 모습으로 몇 일쯤이나 살다가 가겠  
습니까?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씨로 모두에게 자  
비를 베풀고, 극치적인 모든 일들의 이미지를 아  
주 말갈게 귀정을 짓고 가야. 오다을 생애 또 모습  
을 해 가지고 나올 때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소통령  
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. 하하하...

**질문자2(남):** 질문 올리겠습니다. 대구에서 왔  
습니다. 얼마 전에 이 한마음 법을 알게 되어서 평  
장히 생활이 즐거워졌고, 또 직장 생활에서도 여



러 가지로 당당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  
다. 실질적으로 불교를 접한 것은 한 15년 됐는데  
그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님 말씀처럼 수박  
껍데기 찢는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  
다. 이 법을 알고 나니 정말 수박을 쪼개 먹어야겠  
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체험 가운데 즐거움을  
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비록 이것이 시작이지만  
이 생애 원가를 꼭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스님  
법문 들으면서 확고하게 들기도 합니다.

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, 가장  
세속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 
중의 하나인 돈 문제인데요, 이 문제에 대해서 저

도 많은 생각을 해 봤고, 또 고민을 해 왔습니  
다.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, 탐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  
이 돈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삶  
에 있어서 떠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 
없고,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 
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원과 욕심과 탐심이  
구별이 안됩니다. 어떤 때는 이것이 서원이 되기  
도 하고, 어떤 때에는 탐심같기도 하고 그래서  
'불교를 믿는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그게  
제대로 믿는 건가?' 하는 내면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 
하고, 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도 하는  
데, 이 서원과 욕심이나 탐심을 불교하고 연관지

어 여쭙고 싶습니다.

**큰스님:** 하하하...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 
돈이 없으면 참 궁하고 괴롭고 그렇죠. 그런데 모  
한 법이 있습니다. 돈을 꼭 쟁야 할 때는 돈이 나  
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. 남한테 꾸러 가지 않  
고 돈을 쌓아 놓지 않고도 어느 거든지 내 것 아님  
이 없이, 내가 쓸 때가 되면 딱 나오게끔 말입니  
다. 하하하... 그런 방법을 몰라서야 어찌 부처님  
의 길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?

예를 들어서 내가 '아, 이거 바가지가 없어서  
물을 풀 수가 없는데...' 이러면 벌써 주인은 알  
고 '어, 바가지가 있어야 내 심부름을 하겠구나!'

이러고 바자지를 털려 갖다 주는 거예요. 그러지  
않는다면 돈이 당장 없을 때, '돈이 없는데 이거  
참, 어떡해야만 돈을 만들어서 쓰나. 어떻게 해야  
만 이걸 갖나.' 하고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  
람에게는 돈이 빼곡히 들여다보다가 달아 나가  
요. '저 집으로 내가 들어갔다가는 그냥 찢기고  
온통 야단나겠구나!' 하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돈  
도 사람의 마음도 몸도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한  
마음이 돼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주인이 다 하  
게끔 돼 있어요.

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. 이 법공양을 지을 때  
말입니다. 돈 한 푼 없었죠. 그랬는데 이런 집 한  
채를 갖다가 그냥 털려 내려주시는 겁니다. 이거  
무슨 뜻인지 모르시죠? 그러더니 사람들이 돈을  
그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게 된 겁니다. 오래  
플지도 않고요. 만약에 내 사사로온 욕심을 내서  
이거를 그냥 움켜쥐려고 했다면 이거 안됐습니  
다. 이거는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. 그래  
서 마음을 넉넉히 쓰라고 하는 겁니다. 내가 욕심  
을 부려서 돈 없다고 돈을 생기기 해 달라고 원을  
한다면 그건 안 되죠.

그러나 내가 없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알고 있  
기 때문에 갖다 줄 거라는 거, 네가 형성시켰고,  
네가 움켜쥐려고 하고, 살게 하고, 심부름을 시키  
면서 심부름꾼에게 돈을 안 줘서 심부름을 못하  
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. 아, 그놈이 다  
시키는데, 그러니까 그놈한테다가 딱 맡기고 쫓  
방귀 꼭 쫓아주고. 아, 무슨 격정입니까? 예를 들  
어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으면 하인은 그 주인의  
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지, 돈이 없고 고에 무슨  
참견을 하느냐 이겁니다. 네? 살릴까 게 없으면  
주인이 어렵히 볼까 봐, 아, 주인이 주면 하고 주  
인이 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런  
마음을 가져야 나중에는 진짜 주인이 돼 버리는  
거예요. 주인도 없고 하인도 없고 진짜 그 가운데  
그냥 자기가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.

그러니까 아직까지... 불을 지피는데 말입니다.  
젖은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 마른 나무로 불을 지  
피느냐에 따라서 소시개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  
가고 하죠. 그러니까 마른 나무와 젖은 나무에 똑  
같이 불쏘시개를 한다면 젖은 나무는 안 타요. 그  
렇죠? 마른 나무는 불쏘시개를 조금만 해도 타 버  
리는데 젖은 나무는 불쏘시개를 똑같이 갖다 놓  
고 하더라도 그 불쏘시개를 훌라 타 버리고는 안  
타요. 그거와 같은 겁니다.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  
도

26면으로 계속

##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학인 및 염불원생 모집

- 강원생 모집 (수시모집)
  - 초심반, 치문반, 사집반
- 염불원생 모집 (수시모집)
  - 기초의식 (3개월), 전문의식 (6개월)
- 대 상 : 사미, 사미니, 비구, 비구니, 타종단 가능
- 강 사 : 경담스님 (중요무형문화재 법매 50호 이수자)
- 특 전 : 치문반, 사집반은 월 300,000원 개인장학금을 지급합니다.
- 구비서류
 

1. 입학원서(본 강원 소정양식)	1부
2. 이력서	1부
3. 주민등록 등본	1부
4. 건강진단서	1부
5. 승복차림사진(3×4cm)	3매

※ 문 의 : 061-754-5247, 011-254-3037(주지스님)  
주 소 :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선암사  
홈페이지 : www.seonamsa.co.kr

## 전통범음범패(바라,나비작법) 과정 수강생 모집

경북교구 총무원 범음.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.  
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, 범패, 작법(바라춤, 나비춤)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.

1. 교육기간 및 과정 (1년)
  - 가. 초급과정(2개월)
    - 송 주 : 도량석, 종승등
    - 예 경 : 향수해례, 사성례, 칠정례, 오분향례, 각단예불
    - 권 공 : 삼보통정, 상단·중단권공, 각단불공, 요령, 묵탁
  - 나. 중급과정(4개월)
    - 시련, 삼심이운(매불이운), 대령, 관옥, 옹호계(신중작법39위,104위), 지장청, 시왕도청, 전시식, 관음의식, 상용영반, 화엄시식, 구병시식, 봉송편
  - 다. 고급과정(6개월)
    - 바 라 춤 : 천수바라, 사다리나바라, 화의제바라
    - 나 비 춤 : 오공랑, 유원승, 요잡작법
    - 사 물 : 태징, 북, 광쇠, 호적(태평소), 전통의식타법,
    - 특 강 : 종사이운, 종사영반, 점안의식, 시달림(다비), 예수재의식 등
- 라. 강 주 : 김범은 스님, 이현진 스님

2. 입학식 및 개강일시
  - 입 학 식 : 2010년 3월 4일 (목요일) 오전 11시
  - 개 강 : 2010년 3월 4일 (목요일) 오후 1시
  - 수업시간 :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~ 5시
3. 입학자격 : 종단과 승.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
4. 수 강 료 : 교육비 10만원(교재비별도)
5. 강의장소 : 경북교구 총무원 실법전
6. 제출서류 : 입학원서 1부(본총무원에서 교부)
7. 접 수 처 :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총무원 (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장리 265)
8. 접수기간 : 상시모집
9. 문 의 처 : 053)857-4339, 팩스 053)857-0206



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총무원 범음·범패 교육원